

생동감 넘치는 조직의 힘으로, 빈곤과 차별의 벽을 넘는다



부산반빈곤센터소식지

최비름



77

2026. 3.

2026정기총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여는 시: 봄으로 가는 길
윤웅태 동지 10주기를 맞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매일 '진짜 가족'을 만난다 | 회원탐방: 이영우
살인과 사냥 그리고 범죄와 복수, 그 의미에 질문이 필요한 때
윤웅태 동지 10주기 토론회 | 맛집탐방: 봄의 전령사

01 여는 시

봄으로 가는 길 | 시로쿠마

02 여는 글

윤웅태 동지 10주기를 맞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편집위원장



03 표지이야기

2026정기총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 최고운 대표

05 활동보고

우리는 매일 '진짜 가족'을 만난다
| 임기현 활동가

15 회원기고

살인과 사냥 그리고 범죄와 복수,
그 의미에 질문이 필요한 때 | 김남영

07 사진으로 보는

윤웅태 동지 10주기 토론회 | 교육위원장

17 교육위원회

09 회원탐방

이영우 | 편집팀

19 맛집탐방

봄의 전령사 | 김민수

* 표지 사진은 2월 27일, 2026 정기총회의 모습입니다.
* 위 사진은 맛집탐방 '뽕안채'의 상차림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2월 13일, 영락공원에서 제9회 장애인민
합동주모식을 치르는 모습입니다.

21 아침편지

23 회계 및 활동일지



봄으로 가는 길

시로쿠마

날 선 서릿발 위를 걸어온 발끝이
퍼렇게 얼어갈 동안
통증마저 무뎠던 계절

겨우 내디딘 걸음조차
느껴지지 않을 즈음

끝내 도착한 계절의 어귀에서 마주한
머칠의 햇살이

얼었던 걸음을 채 녹일 여유조차 주지 못하고
멀어져 갈 때

걸음을 멈추어
깜깜하고 끝조차 보이지 않는
겨우내 걸어온 긴 터널을 돌아본다

다시 고개를 돌려
마주한 살을 에는 바람
시린 눈 뜨기도 어려운 걸음에 비틀대던 언젠가

얼었던 발끝에서 금세 사라져간 따스한 잔향이
쓰러질 듯 여리고 느린 걸음이나마 내딛도록
살짝이 등을 밀어준다
겨울은 아직 남았지만
나는 안다

잠시 스쳐 간 온기가
이 길의 끝을 봄으로
조금은 기울여 놓았다는 것을

윤웅태 동지 10주기를 맞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2026년이 시작되고 윤웅태 동지의 10주기 추모제와 생전 윤웅태 동지와 함께 평의회 운동을 이끄신 오세철 교수님을 초빙하여 진행된 10주기 기념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이념과 발자취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이번 10주기 추모제와 기념토론회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빈곤은 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하고 있고, 불안정한 노동과 주거, 돌봄의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삶의 경계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제도의 언어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삶의 무게가 거리와 골목, 그리고 각자의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웅태 동지가 우리 곁에 남긴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삶을 붙들며 만들어가는 연대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속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의회 운동 역시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스스로의 힘이 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던 실천이었습니다.

센터가 걸어온 길 또한 이러한 질문들과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작고 느린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지금의 부산반빈곤센터를 만들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6년은 센터에도, 소식지 쇠비름에도, 그리고 센터를 애정하는 회원님들에게도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날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재정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호 표지이야기는 2026년 정기총회입니다. 어떤 평가와 계획들이 논의됐는지 지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윤웅태 동지 10주기 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화리뷰와 맛집탐방, 공영장례 이야기도 역시 이어집니다. 아무도 방문하지 않던 다음 카페 '부산반빈곤센터'에 김택수 위원이 매일 아침편지를 남기면서 많은 이들이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원석 팀장>

2026정기총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2월 27일 저녁 7시 공간달품에서 2026년 부산반빈곤센터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공식행사의 첫 시작은 ‘달품 약속문’ 낭독하기죠? 그래서 이날도 참석자들이 한 문장씩 약속문을 낭독 후 본격적으로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총회 1부 활동사진 퀴즈! 퀴즈 방식은 센터의 활동을 담은 사진의 일부를 보여주고, 대략 언제쯤, 어떤 활동이었는지를 맞추는 것이었는데요. 아주 활발히 정답을 외쳐주셔서 상품을 고루고루 잘 나누어 가졌답니다.

이어서 “2025년 센터 사업 중 좋았던 것”과 “2026년 보완하면 좋을 것”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를 했어요. 사전에 총회 참석 여부와 함께 구글폼으로 의견을 받았었지요. 유효한 답변을 주신 17명 중 8명이 공통적으로 ‘공영장례’를 언급해 주셨어요. 특별히 김원석, 양재평, 임기현, 임지훈 회원님은 조문단 양성과정과 활동이 좋았다고 하셨네요. 덧붙여 이연승 회원님은 연대의 현장을 문화예술로 풀어가는 방식이 좋았다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작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3편의 단편영화를 완성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해 주셨죠. 그래서 2026년 올해 모범회원상 수상자는 이연승 회원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이처럼 꼭 짚어서 영화제작 프로젝트가 좋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많았어요. 김상희, 김수미, 김택수, 이영우, 안정숙, 임현주 회원님이 영화제작과 상영회가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특히 ‘만남’으로 연출을 맡아주신 김상희 회원님은 밤새 고민하며 또 팀원들과 화합하여 꼼꼼하게 본인의 창작물을 완성해 내기도 하셨는데요, 프로젝트 과정 전반이 다 좋았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외 이선화, 맹정은, 노조은영 회원님은 각각 사회과학 세미나, 윤석열 퇴진 집회 참석, 영화숙 재생원과 서면시장 연대활동이 좋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센터 활동 관련한 많은 관심과 열의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보완점에 대해서, 심동하 님이 신입회원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 주셨고요. 이연승 님이 그저 좋은 의미의 참여를 넘어서 세심한 기획과 전략을 요청하며 반빈곤 운동 자체를 브랜딩하여 더 대중적으로 알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김상희 님도 비슷한 의견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깨우고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간단한 영상편집을 회원들이 직접 배우고 공영장례와 반빈곤 운동을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임기현 활동가님은 2030사명비전 수립, 사무실 임대료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위가 위임받아 상반기 안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결과는 오른쪽 자료집(QR코드 스캔)으로 확인해 주세요. 올해 드디어 신입운영위원 합류! 류지아 위원님 환영해 주세요! 총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최고운 대표>

총회자료집 보기/다운로드



총회 결과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임운영위원,
류지아 님!**

2022년부터
서로배움실천팀 활동!

2025년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4기 수료!

단편영화 '만남'팀
조연출, 3편의 영화에
배우로도 활약!



**모범회원상
수상자 이연승 님!**



많은 관심과 격려,
축하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

후원 감사합니다!

이 날 '달콤포차'라는 현수막과 함께 박은희 회원님이 두부김치, 스팸구이, 쥐포구이, 오뎅탕, 계란말이 준비해 주셨고요. 김수미 회원과 김택수 위원님이 퀴즈선물로 김세트와 홍삼, 매실차 세트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상희 회원님이 만두를 사오셨고요, 신임 류지아 운영위원님이 맛있는 떡을 해주셨어요 :) 그리고 맹정은, 오세철 님이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짜 가족'을 만난다

임기헌 활동가는 '작은책'에 기고 중이며, 이 글은 '작은책' 1월 호에도 실렸습니다.

작년 11월 어느 날 00구청 고.000님 공영장례 부고 실시간 알람 메시지가 떴다. 이 기능은 부산 시민들이 일일이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부산시의 공영장례 부고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가 직접 만든 '공영장례 부고 실시간 알람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실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한다.

메시지를 보고 다섯 명의 조문단이 조문에 참여했다. 조문하면서 가장 놀라는 일은 빈소 앞에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는 순간이다. 신발이 있다는 것은 무연고사망자 빈소에 누군가 조문을 왔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까운 지인이거나 어려운 사정으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신 가족들이다.

어떤 분이 말을 건네지 못할 정도로 슬프게 울고 계셨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또 함께 눈물을 흘려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하는 순간이다. 그분은 고인과 50년을 함께 살았던 친구분이셨다. 사연이 비현실적이라고 할 만큼 특이했다. 고인은 행려자로 등록되어 50년 동안 주민등록 없이 지인과 함께 살다가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파도 병원도 가지 않고 집에서 끙끙대면서 참았다는 것이다. 사연을 듣고 보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오셨고, 그 이후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집에서 꼼작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었다. 20대에 공장에서 만난 지인이 평생 돌봄을 하셨고 친구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셨다. 고인은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였다가 다행스럽게도 사망 직전에 주민등록이 이루어졌는데 지하 무연고 사망자 봉안실에 안치된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면서 비통해하셨다. 마치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일처럼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다(부산은 무연고 사망자 봉안실이 건물 구조상 지하에 있음).

지인은 50년 가까이 지인으로서 돌봄 관계에 있었으므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즉, 연고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하 무연고 사망자 봉안실에 안치되는 고인의 유골을 연고자인 지인이 인수해서 밝고 햇빛 들어오는 더 나은 환경의 봉안실에 모실 수 있는 것이다(장사법 제2조 아목, 2025년 장사업무안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사실관계가 이러이러하니 지인은 연고자의 자격이 된다. 고인의 유골을 인수하게 해달라고 하니 3시간 뒤에 구청 담당자가 지인에게 전화해서 고인과 함께 있었던 자료와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에 지인은 사

진첩을 들고 들어가서 곧바로 ‘유골 인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공문을 부산영락공원(화장시설)으로 보낼 수 있었다. 사진첩에 고인과 찍은 사진 몇 장만 보여주면 연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지인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뻔했다.

부산에서는 공영장례 빈소 조문 가능한 시간이 겨우 6시간이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조문단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때로는 반차를 내고 참여하려고 애를 쓴다. 세상에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제도를 만들어놓고 조문 시간을 겨우 6시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친구의 유골을 지상 밝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최종 결과를 듣고 그때부터 지인의 얼굴은 정말 환하게 빛이 났다. 우리 조문단에게 연거푸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다. 우리도 조문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여전히 비통한 마음으로 화장로에 고인의 관을 들여보내기 직전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른다. 지인의 마지막 인사는 말할 것도 없었다. 1시간 40분이 지나서 유골을 수골한 다음 부산영락공원의 영락원으로 올라갔는데 여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는 이미 6월부터 예정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봉안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관에 있는 ‘부산추모공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 사실을 장례식장 직원도 모르고 있었고, 구청 담당자도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직도 온기가 가지지 않은 고인의 유골함을 곱게 싸서 품에 안고 부산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마침, 소통하고 있었던 000 차장님의 도움으로 사무실 직원이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마지막 봉안하는 순간까지 순조롭게 일을 마쳤다. 여전히 지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고인이 모셔진 봉안함을 바라보면서 지인이 대화했다. ‘00아, 오늘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너를 지하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었어.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잘 있어’

15일이 지나서 다시 지인과 함께 고인을 만나러 갔다. 봉안함에 명패와 사진이 도자기판으로 제작되어 잘 붙어 있었다. 또, 지인은 고인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팔을 부드럽게 끌어당기면서 ‘그때 너 도와주셨던 분도 같이 오셨어.’

우리 사회의 법적인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에 의해서만 정해지만 이분의 경우는 정반대이다. 법적인 가족이었던 그 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했던 가해자였고,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지인은 행려자였던 고인을 50년 동안 돌봤다.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족일 수 있다.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진짜 가족’을 만난다. <임기헌 활동가>

비빔밥데이



2월 12일 명절을 앞두고 비빔밥데이를 열었습니다! 영화속재생원협의회에서도 많이들과 주셨고요. 저희 내미는마음 주민들과 함께, 부산시민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도 겸해서 맛나는 오뎅, 비빔밥, 김치전을 나눠먹었습니다! 김치전, 음식도움 뿐만 아니라 후원금까지 영화속협의회에서 전해 주셨고요. 그외 재료수급과 음식 준비, 각종 도구 준비를 박은희 회원님이 전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달퐁이 북적북적~ 밥 한끼를 함께한다는 의미가 참 크게 다가왔던 하루네요 :)



◀ 부울경노동역사관 건립 후원에 감사표시로 받은 추첨선물 ▶

윤웅태 동지 10주기 추모제&토론회



지난 2월 7일, 솔밭산에서 윤웅태 동지 10주기, 박일수 열사 22주기 합동묘역참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김택수 위원님이 약력보고를 해 주셨고, 김민수 위원이 추모사를 해주셨습니다. 10주기를 맞아 오신 분들께 떡을 돌렸고, 이어서 바로 달퐁으로 이동하여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대표님과 평의회 운동을 함께했던 코뮤니스트정신계승회의 오세철, 윤태상 님을 모시고, 평의회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 전망을 함께 토론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구성원이
중심이_되어
함께한다**



1월 2일,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달품에 와서 수도를 수리해 준 김택수 위원님! 얼마 전에는 콘센트와 전구도 싹 같이 주셨어요~



소식지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전소현, 김원석,
김민수, 최고운!

소현님은 교정을,
원석님은 교정과
팀장을 맡고 계시죠!

민수님은
맛집탐방을 맡고 있는거
아시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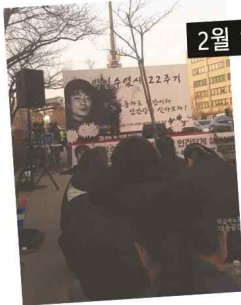


1월 26일 편집위원회 회의가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있었어요. 편집위는 격월에 한번 쇠비름 기획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없는 달에는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어요 :)

★ 고정필진 및 편집팀원을 모집합니다! ★

시, 수필, 문화리뷰, 정보글 정기적/비정기적 기고하실 분!
소식지 기획, 편집, 회원탐방(녹취록 작성), 취재, 사진촬영 함께 하실 분!

**#현장에서
힘을_모으고
연결한다**



2월 13일 제9회 장애인민 합동추모식



◀ 2월 13일, 현대중공업 앞에서 박일수 열사 22주기 추모제 참석

1월 28일 영화숙재생원 국가 손배소 승소!



**#서로
배우고_모두
성장한다**

1월 15일 달품에서 조문단 후속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임기헌 활동가가 죽음학의 관점에서 임종기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조문단의 또 다른 역할로서 사별가족 상담과 돌봄을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타지역 공영장례 제도까지 공유해 주셨습니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모임을 이어갑니다!
1월 9일, 23일 사회과학세미나 '노동자평의회' 읽기가 이어졌습니다~
길위에는 매월 두번 꾸준히 모임과 연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1월 10일 신년회도 함께 했습니다 :)



이 영 우



3월 8일, 생일을 이틀 앞둔 이영우 님의 책에서 회원 몇몇 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괄호 안에 이름이 표기된 것 외에는 최고운 대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이고 회사 생활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서른 중반에 시작했으니까.

(김상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첫 출근, 인생 첫 출근!

제가 직업상담 쪽에 관심이 있어 자격증 취득하고 지금 하는 일은, 퇴사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위해 상담하는 일입니다. 국가 기관에서 위탁받은 민간 업체였는데 2019년도에 정부 정책으로 무기계약직이 됐죠. 이후 심리상담도 공부를 했고요. 제가 직업상담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 나이 마흔 쯤에, 학생운동하다가 졸업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소주 한잔하고 “야, 잘 가라” 인사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 일을 계기로 고민을 좀 많이 했지요.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전문 상담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죠. 석사 마치고 교육 컨설팅 쪽으로 박사 수료하고 학회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막상 본업이 따로 있고 상담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회사생활과 겹해서 가능한만큼 심리상담을 하고 있죠.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법무사라든지 전문직 자격증을 따려고 했었는데 돈과 시간 면에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변에 서울에서 노무사 공부하는 선배도 있었거든요. 저도 한번 공부해보자 싶었죠. 근데 제가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한두 달 공부하니 고시원비, 학원비 돈이 들다보니까 끝까지 못했고, 제 길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마음은 그런 전문자격증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걸 꿈꾸긴 했어요. 소련 무너지고 IMF 되고, 우리의 사회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들 고민이었고, 막상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었죠.

지금 근무환경은 어떠세요?

페이는 좀 적지만 무기계약이고 서로 간섭하는 게 별로 없고, 탄력 근무하면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고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축구선수. 마라도나, 펠레 좋아했고 우리 때는 차범근이 최고였죠. 공 차고 많이 놀았는데 재능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반별로 경기했는데 선생이 하는 말이 “니 공 잘 찬다더만 우~ 하고 공만 쫓아다니냐고” 하더라고요. 뛰는 건 곧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시력이 나빴어요. 학교에 배구팀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선생이 눈이 나빠서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이연승) 꿈이 공이었네요. 우리 세대 때는 눈 나쁜 사람이 많이는 없었죠.

책을 많이 보셨나?

(김택수) TV를...

(이연승) 공을 뚫어져라 너무 많이 보신 것 아닐까요?

아참, 그때는 안경도 비싸고 그래서 집에서 쉽게 못 사주던 시절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안경을 사줬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공부를 잘하고 착했던 모양이죠. 초등학교 땐 개근이었고.

고향이 부산이세요?

태어난 곳이 장전동.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금정산 아래 하천 쪽에 살았고요. 금정초 1년 못 다니고 금강초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이라는 게 아동기 인생에서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적응이 잘 안 되면 힘들어요. 친구 다 사라지지, 다시 사귀려면 피 터지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김택수) 저도 4번 전학을 갔는데 힘들었어요.

(박은희) 저도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을 왔는데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처음엔 힘들었죠.

미남로타리 지나 시장 있고 한 데가 사직이잖아요. 제가 사직중학교를 갔는데 그때는 학교 가는 길이 비포장이었고, 신설 중학교여서 제가 아마 3회 졸업생인가 그래요. 아스팔트 길이 있긴 한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고, 흙길도 있고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죠.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중학교 때는 이리저리 어울려 놀았고, 고등학교 때가 86년이었죠. 한창 노동자 투쟁으로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것 같아요. 학교 때 친구 하나도 직간접적으로 선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고, 전교조 추진하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고. 3학년 때인가, 그 애들하고 독서 토론회 하면서 ‘노동자의 철학’,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이런 책 접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경성대 앞 중국집에서 술도 한잔씩 하고...

이제 민수씨가 궁금했던 주제로 넘어갑시다. 대학교에 가서 전공이 뭐였어요?

정치외교. 그 학과가 뭔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의 형이 정치외교과더라고요. 그 집에 가 보니까 전부 사회과학 서적이고 맑스 책이더라고. 그래서 정치외교과를 가면 맑스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막상 학교를 가보니 정당사, 정치 사상사 그런 고리타분한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학과 공부는 거의 안하고 동아리 활동만 했죠. 고등학교 때 경험이 좀 있으니까 신입생 환영회 때 ‘광야에서’ 이런 거 부르면 선배들이 좋아했죠.

학교를 입학 하자마자 ‘광야에서’를 불렀다? 약간 관심받는 걸 좋아하셨네요.

(김민수) 혹시 전인권 창법으로 부르셨나요?

그때는 오디오 이런 게 없잖아. 노래 들을 경험이 별로 없고 선배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거죠. 아니면 테이프. 사회과학 서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두 개씩 사고, 그랬죠.

(김택수) 서면, 부전시장 끝자락 쪽에 있던 서점, 그게 디딤들이었고요. 거기서 ‘굿즈’ 그러니까 걸개나 엽서 그런 걸 팔았어요.

그렇죠. 판화나 배지, 테이프도 팔고 그런 데가 있었죠. 근데 저는 서면 쪽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집 근처, 부산대 쪽으로 다녔죠. 정문 옆에 하나 있었고, 그 외에도 맞은 편에도 몇 군데 있었죠.

네, 맑스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였죠?

민족사연구회. 왜 거길 갔는진 모르겠어요. 아마 선배가 추천해서 갔겠죠. 동아리방이 교지편집위원회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서 웬데하고 1학년 때 만난 거예요. 맨날 학교 밑에 내려가면 있더라고요. 술 마시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또 동아리방에 있고.

(김택수) 웬데 선배는 3학년 때쯤 돼서는 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두 분은 학교에서 만난 적은 없으세요?

택수랑은 그다지 안면이 없어요. 민족사연구회가 일종의 권력투쟁 또는 노선 문제로 이름을 몇 번 바꿨어요. ‘일사랑’으로 바꾸면서 중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고요. ‘여성문제 연구회’도 있었고. 우리 때 학생운동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지요. 소련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환경, 여성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고 다양하게 가지가 많이 생겼죠.

동아리 성격도 조금씩 바뀌고?

그렇죠. 문예, 문학 이런 쪽으로 많이 생겼고. 저는 사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주축은 아니었고요. 단지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그 시간들이 그저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나는 혁명과 결혼했다”. 진짜 그때는 혁명 되는 줄 알았어요.

(김택수) 동의대에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냐 하면 ‘혁명의 성지’예요.

아, 맞다. 제가 동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89년에 53사태가 있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대학가요제 상 받은 팀도 있고...

압니다. 저 바다에 누워!~

제가 대학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서울에 어디든 가려면 갈 수는 있었어요. 다만 크게 대학 갈 생각은 없었고, 89년에 재수를 하면서 집 근처 술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는 술집이 잘됐고 월급도 제법 쫓겨요. 서빙을 했는데 맥주 딱 갖다주면 손님들이 팁도 많이 쫓겨요. 그때 돈으로 만원이면 큰데 그냥 퍽퍽 줄 만큼 경기가 좋았던 거죠.

그 정도면 학비도 벌었겠네요.

네, 그러다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일하던 중에 소위 ‘53사태’²⁾가 터졌죠. 한겨레를

1) 1985년 제9회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한 높은음자리의 노래 ‘저 바다에 누워’.

2)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시 구속된 학생 중 일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았으나 완전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명되지 못했다.

정기구독했었거든요. 후속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5월 3일에 동의대에서 사건 터지고 경찰이 죽고, 근데 사건의 진상은 다 미스터리잖아요. 경찰은 죽었지, 학생들은 억울하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같은 환경에서 모의실험을 했는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단 말이에요. 53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입시 100일 남기고 동의대를 선택했죠. 제가 입학하니 감방 간 선배도 있고, 나온 선배도 있고. 그땐 ‘구출하자’ 이런 분위기였고, 부모 모임도 있고 정기적으로 면회 가고 여러모로 과열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 이어가는 선배들과 포기하는 선배들 사이에 반목도 좀 있었거든요.

(김택수) 저도 53 선배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선택을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왜 선배들은 운동을 포기하냐, 변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때로는 끝까지 감옥에 남아서 싸우는 선배들을 위해서 후배들은 때마다 학과마다 사람들을 조직해서 면회를 가고 했었어요. 저도 면회 가고 그랬는데, 87, 88학번 선배들은 제가 학교에서 본 일이 없으니까 그때야 선후배가 처음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 대학교 1, 2학년 때 잡혀간 거예요. 나중에는 다 풀려났지만. 도서관에 있다가 영문도 모르는 채로 갑자기 불이 나서 사람이 죽고, “니가 그랬지? 니가 불 질렀지?” 그런 취조를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무기징역 받고 어떤 선배는 사형받고 그랬던 거잖아요.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갑자기 사형?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김택수) 그러니까 그 선배들은 재판받으러 나올 때마다 수갑을 찬 채로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는 ‘3층에서 사는 사람’ 강00 선배라고 있었는데 제가 직속 후배였고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동의대에서의 마지막 코뮤니스트니까... 선배들이 저를 좋아했죠. 그 선배들 덕에 전국적 투쟁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도 하고 그랬죠. 그때는 PC통신, 천리안이 있던 시절인데 학생회실에 앉아서 파란 화면 보면서, ‘띠띠띠’ 그야말로 통신을 하는 거죠.

(김택수) 조직이 있었죠. 그리고 동아리마다 정치성향도 다 다르고. 비합법 지하조직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새벽에 남들 다 자고있는 시간에 유인물을 돌려요.

당시에는 그게 의미가 있겠냐, 운동이 이미 오픈 다 돼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배들 간의 갈등이 워낙 심했고,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민주화 보상금 가지고도 누구는 받았다, 안 받았다 서로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그랬었으니까. 그때 저는 선배한테 욕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땐 나름의 확신이 또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세상의 길이나 삶의 길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지금에 와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 거지요.

학생운동 했던 거는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할 건 없죠. 그 시절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뿐이지, 후회하진 않아요.

삶에서 조금이나마 남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추억만 있고 남는 건 없지요. 사람은... 졸업하고 어느 정도 연락하다가 끊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서로 신념과 혁명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 철저함이 무너졌잖아요. 서로 약간의 부채감 때문에 더 안 만나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서울에, 정치권에 있는 놈들은 변절해도 잘만 만나더라. 간에 털이 났는지. 저는 크게 변절한 것도, 배신한 것도 없고 권력에 빌붙지 않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갈 뿐이지요. 우리는 다 개성이 강하고 갈래가 많고, 응집이 잘 안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게 뿌리는 정신분석인데, 프로이트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보통 상담이론이라고 하면 주로 미국 이론을 배우니까 그런 사실들을 잘 모르죠. 저는 상담학 쪽인데 굳이 분류하자면 '사회정의 상담'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회정의 상담이요?

상담사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죠. 성소수자, 젠더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요. 산재 노동자라든가 실직 노동자라든가 상담의뢰가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안정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상담으로 해결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지요. 다만, 원칙과 신뢰가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 전문적 조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 리더십도 상담이 기반이거든요. 사회운동 내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죠.

상담이라는 일을 택하신 것도 사회나 운동에 이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열성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시간날 때마다. 예를 들면, 민주적 합의라고 하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도출하고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떤 조직이든 당연한 부분인데 실제로는 '나는 왜 말을 못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의 이해, 때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조직 안에서는 어떠한 룰이 있다'도 얘기하는 구체적인 민주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는 지도 알아야겠죠.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심리상담이 되는 거죠.

AI가 활성화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은 없나요?

상담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AI하고 다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AI 대화를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답만 하는 건 상담이 아니겠죠. 상담은 만족스러운 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직면을 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AI는 계속 답을 요구하고 새로운 제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지금 AI는 우리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축적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내담자, 상담자가 서로 합이 맞아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상담의 목표가 내담자가 적응 잘하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산다는 것도 어찌보면 우스운 거죠. 예를 들어, 대기업 임원이 상담 코칭 잘 받아서 부하 직원 피 잘 빠는 상사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본주의 안에서 조직의 부품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적응'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다면 노동자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고민도 필요하죠.

상담의 관점과 목표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네요.

7, 80년대에 여성주의 상담이란 게 나왔죠. 여성이 많이 억압받던 시절에 상담만 가지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투쟁하러 나가는 거죠.

마침 오늘 여성의 날이네요.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이 좋아지기 위해 사회참여 시키고 함께 투쟁하고 그런 상담도 있어요. 갈래가 많은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잘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귀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책임든 뭐든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남기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나이는 생산성의 시기³⁾거든요. 활동이든 연구든 후대에 남기는 게 중년기 과제이고 그게 실패하면 고립과 침체가 오는 거죠. 돈 좀 벌면 촌에 명상센터 같은 거 지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지난번에 제가 곡성의, 공동체 활동하는 서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했었죠. 지역마다 자연, 생태, 영성 이런 쪽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연승) 많죠. 어떤 집단은 자기들만의 화폐도 만들고 자급자족을 하더라고요.

공동체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이, 정상, 비정상 나누기는 힘든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착착 뭘 해 나가야지 완성되는데 그 끝은 허망하고 공허하게 끝날 수도 있는 체계라서 뛰쳐나가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만 공동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생산관계의 모순보다는 인간의 욕심, 본능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요즘 관심사는,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손흥민 골 넣는 거.

혹시 다른 분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류지아)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에 진짜 답을 못했을 때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낮추면 된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혁명은 되지 않았구나’ 하는 불쾌감은 남겠지요.

마지막으로,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리 : 최고운>

3) 에릭슨(Erikson)의 생산성(Generativity)은 심리사회적 발달 7단계(중년기, 약 35~65세)의 핵심 과업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

살인과 사냥 그리고 범죄와 복수, 그 의미에 질문이 필요한 때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올가 토카르추크, 2020



모든 만남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특정한 텍스트와의 만남도 우연과 필연의 상승작용에 기인하는 것 같다. 내 취향이라는 분명한 원인이 만든 필연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진 우연한 스침을 통해 이 책을 만났기에 이 책과의 만남도 우연과 필연의 상승작용이다.

이번 호에 소개할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내가 평소에 책을 선택하는 통로와 다른 경로로 내게 닿았다. 나는 대체로 지인의 추천이나 내가 읽은 자료들의 인용 목록을 통해 책을 선택한다. 그 경우 책에 대한 사전 정보가 이미 상당하다. 그러나 이 책은 사전정보가 전무했다. 내가 평소 좋아하는 몇몇 분의 SNS 포스팅에서 스치듯 제목을 보았더라. 사실 포스팅한 사람도 포스팅한 내용도 선명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책 제목만 몇 번 반복적으로 보았기에 호기심이 발동했고, 이 책을 포스팅한 구체적인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분들의 평소 게시글들에 공감하던 터라 이 책도 내가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책 제목 말고는 책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에, 장르를 알고서는 결코 내가 선택하지 않을 범죄 스릴러를 읽게 되었다. 하물며 이 작품이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58)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내가 짐작이나 했겠나? 솔직히 나는 발음도 어려운 올가 토카르추크라는 작가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생각해 보면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중 한강을 제외하고 이름을 아는 작가를 나열해 보면 펠릭, 헤르만 헤세, 엘리엇, 앙드레 지드, 헤밍웨이, 까뮈, 그리고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비교적 최근에 받은 아니 에르노 정도다. 이 중 펠릭과 아니 에르노를 제외하면, 또 일본인을 제외하면 모두 제 1세계 남성작가다. 어렵듯이 오르한 파묵,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같은 제 3세계 작가도 떠오르지만, 이들도 역시 남성 작가다. 이번에 찾아보니 역대 121명의 수상자 중 여성 수상자는 18명인데, 1901년 셀마 라게를뢰프(스웨덴)가 여성으로서는 처음 받았고, 1990년대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00년대 이후 9명의 여성이 수상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 제 1세계와 제 3세계 등 인간의 불평등에 한정된 문제만 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사태 앞으로 밀어붙였는가 질문이 필요하다.

그 질문에 대해 올가 토카르추크는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 구절을 인용해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고 응답한다. 우리가 지금 죽은 이들의 뼈 위(굳어진 전통, 권위, 낡은 도

덕, 억압적 규범)에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토대가 되었던 그 뼈들을 갈아엎고 새로운 경작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간 중심의 낡은 도덕, 억압적 규범을 뒤엎는 ‘쟁기 끌기’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계의 도래는 불가능하다.

이 소설은 생태학살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사태를 구체적 사건으로 제시하면서 비인간 존재와 인간의 관계를 문학이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 한 예를 보여준다. 인간을 개별적인 ‘개인’으로 상상하고 그 개별성의 디테일을 창조해 온 것이 근대 문학이었다면, 근대문학이 창조한 근대인은 ‘나’라는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 온 측면이 있다. 그러한 근대인이 세계를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아미타브 고시는 『대혼란의 시대』에서 “문학 창작 영역에서 기후변화는 마치 외계인이나 행성 간 여행 비슷한 어떤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어떤 주제의 시급성이 그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기준이라면, 기후변화가 실제로 지구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의 작가들이 깊이 고민해 볼 주요 관심사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 왜 그럴까? 지구 온난화 추세가 너무 거세어서 기존의 내레이션을이라는 익숙한 배를 타고서는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근대문학적 상상력이 창출한 바로 그 욕망이 탄소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된 추동력이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한 바 있다.

이 소설은 고시의 비판을 무화시키면서 노년의 여성 야니나 두세이코라는 주인공을 내세워 기후위기 시대에 문학의 새로운 상상력을 보여준다. 두세이코 부인은 젊어서 유능한 건축가였다가 노후에 폴란드 국경 산악마을에 산다. 그는 점성술을 연구하고, 윌리엄 브레이크를 번역하며, 빈집들을 관리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두 딸들과 노년을 보내는데 그녀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소설은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인간들의 일반적 감수성에 문제제기 하고, 비인간 존재에 대한 극단적 감수성들을 사유하게 한다. 이 소설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손쉽게 설파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물들은 그저 인간 삶의 수단인가? 필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생명인가? 인간과 꼭 같은 가치를 갖는 생명인가?

이런 질문은 인간이 다져왔던 모든 도덕과 윤리, 법체계 그 자체를 다시 사유할 것을 요청한다. 가독성 높은 이 소설은 여러 가지로 압도적이다. 기존의 장르 문법에서 ‘연쇄살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서사는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사태를 파악하게 하며 사건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 되돌아봄의 순간, 우리는 소설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두세이코 부인의 생각과 실천을 다시 깊이 사유할 것을 요청받는다. <김남영 회원>

윤웅태 동지 10주기 토론회

윤웅태 동지가 가신 지 10년이 되었다. 과연 우리가 그의 사상과 실천을 얼마나 이어가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절실했다. 그래서 윤웅태 동지가 예전에 주도했던 평의회 전국회의를 주목하게 되었고, 당시에 평의회 회의를 주도했던 분들 중 대표적인 활동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귀중한 시간을 오세철 교수님과 윤택상 활동가가 내어주셨다. 서울과 대구에서 오신 분의 만남이라 더욱 귀중했고, 윤웅태 동지와의 만남을 기억하는 자리라서 뜻깊었다.

우선 평의회에 대한 기본 이념에 대해 발제한 윤택상 활동가의 내용은 복잡한 듯 간단했다.

독특한 지점은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자본가와 끊임없이 충돌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용자와의 관계는 단절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여러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맑스 역시 ‘임노동과 자본’이란 책에서 노동조합은 투쟁하다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 흩어지며 임금제 폐지 같은 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며 비판했던 구절이 생각나서 이해가 와 닿았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벌어지는 무수한 이야기들에 대해 털어 놓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계급이 철폐되기 전까지 계급철폐를 목표로 하는 과도기로) 부르주아 독재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면서, 소수가 모든 권력을 가진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다르게 다수 계급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주아 독재에 맞서 계급관계를 철폐함으로써 부르주아 계급을 소멸시키고 자연스럽게 프롤레타리아 계급도 소멸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해방의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근본적인 무계급사상을 전 사회체계에 관철하는 것을 뜻한다며 정리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어난 봉기가 ‘파리코뮌’ 등이 있음을 예시로 내세웠다. 소위 정당운동 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에 들어와서 혁명을 외치면 조합원 간의 분쟁만 생기고, 실질적으론 그 정당운동들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혁명’을 외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돌이표일 뿐임을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이론들은 완전 배척하는 것은 맞지 않고, 맑스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50번 이상 읽고, 리카도의 경제학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처럼 노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맑스는 애덤 스미스와 리카도가 밝혀내지 못한 잉여가치론을 입증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다음 발제자인 오세철 교수님은,
내 이름이 세철이니까, ‘세 번의 철드는 이야기로 시작할게요’라며 좌중을 한번 웃기고 발제를 시작하셨다.

첫 번째 철이 들 때,

2005년에 3월에 “혁명적 맑스주의자 모임” 제안을 하셨고, 이후 2008년도에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을 발족했다. 이 때 2002년부터 평의회 운동을 하는 윤웅태 등 여러 동지와 만나 토론하며 안톤 판네쿱의 ”노동자 평의회“를 번역 출간하며 세미나를 진행하고 전국모임을 진행하셨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두 번째 철이 들 때,

칠순의 연세가 되셨고, 오직 민족주의, 선거주의, 조합주의 세력에 포위된 노동자들에게 국제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이라는 그룹과 함께 국제주의 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요즘 같은 정세에 이들의 슬로건인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전쟁 아닌 계급전쟁으로!”가 마음을 흔드는 큰 외침으로 들려온다.

세 번째 철이 들면서 팔순의 연세가 되셨고,

사람 이름에 ‘-주의’라는 글자 붙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셨다. 맑스에 관해서는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변화시키는 사상을 최초로 말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불러왔지만, 지금은 “코뮤니스트 좌파”라고 규정할 뿐 특정한 인물을 내세워 무슨 ‘주의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맑스와 엥겔스 이후 백년의 세월 속에 맑스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전도시킨 스탈린주의 반혁명 세력, 초기와 다르게 러시아혁명 이후 국가사회주의(자본주의)에 대한 혼란을 보여준 레닌과 그보다 더 원칙에서 벗어난 트로츠키까지 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혁명적 실천을 오도하고 왜곡하며 가로막고 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스탈린(극우)-레닌(중도)-사람 이름없음(좌)로 규정하며 정리를 하셨다. 이러한 조류로 2006년에 세계 맑스주의자 대회를 서울과 울산에서 개최하였고, 올해 26년도에 20년만에 제주에서 반핵투쟁 등을 담아 다시금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국가주의를 끝내라 2) 부르주아 정당 끝내라 3) 이윤 끝내라 4) 시장 끝내라

결국 당은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평의회만 남는다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최종적으로 내 뇌리에는 “나를 교수나 선생이 아닌 동무로 불러 달라”라는 잔잔한 일갈이 남았다. <김민수 교육위원장>



봄의 전령사

봄이다. 이 봄은 우리가 계엄으로부터 지켜낸 독재 타도의 봄이며, 4월이면 들려오는 구슬픈 이야기, 세월호의 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 생장의 시간이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다. 봄을 알리는 전령사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일단 반갑다.

하지만 봄은 과거에는 먹을 게 없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던 모습을 보며 죽어 가야 했던 계절이었다. 그러나 수탈의 시대가 끝나고 벼의 품종이 개량되며 봄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봄의 풀은 기운이 강해서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준다는 말이 있다. 예전 고대의 ‘도가 의학’에서는 가을에 병든 사람을 뜨거운 탕에 담그게 하고, 가을에 갓 나온 무를 집어넣어 병을 고쳤다고 한다. 또 봄에 병든 사람은 탕에 쑥을 집어넣어 몸을 녹여가며 치료했다고 한다. 그 계절의 음식은 그 자체로 강한 기운이 있어서 뜨거운 탕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를 준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쯤 되면 봄에 제철 음식 가득 입에 넣어서 기운 한번 크게 차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다. 이왕이면 맛까지 있으면 좋겠다. 어디서나 자라 민초의 가슴을 달래준 풀 미나리를 삼겹살과 함께 먹어야겠다. 그래, 미나리의 고장 청도로 가자!

청도에는 요즘 나름의 핫 플레이스가 있다고 한다. 바로 ‘청도 프로방스’다. 거긴 그냥 유럽 풍의 지형 안에 있는 유원지이지만, 근처에는 온천도 있어서 요즘 같은 봄철엔 제법 사람들이 붐빈다. 그중 나는 “뜰안채”라는 가게로 향했다. 가게 입구부터 구수한 삼겹살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리고 입구에 고양이와 앉아있는 게 인심 좋은 집이란 느낌이 든다. 삼겹살을 시키고 미나리를 5천원 주고 따로 시켜보았다. 기본 찬으로 두부랑 김치가 나온다. 두부가 나오는데 막걸리 안 시킬 수가 없지!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고장 막걸리인 청도 ‘동곡막걸리’를 시켜봤다. 90년이 넘는 막걸리로 마셔보니 걸쭉한 질감에 쓴맛과 신맛의 균형감이 상당히 좋다. 전통적인 막걸리 스타일의 쓴맛이 있어서 딱 시골 농사일 도중 참으로 먹으면 좋을 그 맛이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고 구워보니 이건 제주흑돼지랑 비슷한 맛이다. 지방질이 특유의 쫄깃함을 갖추어서 고기는 최상급이다. 거기다 오겹살이라서 정말 제주의 맛과 흡사하다. 함께 나온 미나리에 손을 뻗어보았다. 미나리만 따로 씹어보았는데, 헉! 미나리에서 꽃향기가 났다. 아주 다양한 꽃향이 번지는듯하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향이 계속 맴돌았다. 아... 맴돌던

그 향은 바로 박하 향이었다. 이럴 수가 있다니! 미나리에서 다양한 꽃향기와 박하향까지 나다니... 정말 청도 본토 미나리는 우리가 알던 미나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고기를 먹던 중 따라 나온 묵은지 김치를 먹어봤다. 잘 익은 김치에서만 난다는 툭툭 쏘는 듯한 산미가 입안 가득 번졌다. 이건 김치가 묵은지로 익어가며 락토바실러스 균의 효소가 툭툭 뿜어져 나올 때 나는 그 향이다. 여긴 뭐 하나 버릴 게 없이 다 일품이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를 시켜보았다. 어라, 여긴 내륙인데 왜 멸치향이 이토록 강할까? 너무 부산사람들 취향이라서 주인장을 불러 물어봤다. 이런! 알고 보니 원래 부산 분이시고, 해운대에서 오래 장사하시다 여기 와서 터 잡은 지 10년 되셨단다. 그러면서 “봄 미나리 참 좋지요?” 하고 물어 오신다. 너무 향이 좋다고 엄지를 추켜세우니, 미나리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만 봄철에만 꽃향기처럼 달달한 향이 번지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며 먹을 수 있을 때 자주 오라고 하신다. 특히 여기 청도에서 먹는 미나리가 유독 향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칭찬해 드렸다.

미나리는 민초의 풀 그 자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라 누구에게든 평등하게 봄을 선사한다. 모두에게 평등한 미나리의 봄이 오길 기대하며 짧은 시로 마무리한다. <김민수 운영위원>



접근성 및 주소 안내

- 들안채 (경북 청도군 화양읍 온천길 34)
- 건물 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독자퀴즈

김민수 위원이 이번호에 탐방한 청도의 특산물은?
010-5135-7957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 다음 카페 <부산반빈곤센터> 출석체크방에 올라온 이야기 중 선별하여 실습니다.



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오세철 교수님의 맑고 총기 있으신 눈과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사회과학세미나를 통해 불만 아닌 불만? 나 스스로에게 늘 물었습니다. "왜, 그래서, 무엇을, 우짜는데" 라고... 근데 조금 이나마 눈을 뜨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사실 저는 사상이나 이념, 철학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고 정성껏 책 한번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 이해하기란 어렵지만 평의회만큼은 그 자리가 평의회란 걸 알게끔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회과학세미나에서 배우고자 했던것은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 철학이 아닌 서로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을 듣고 이야기 하는 관계 형성이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 덮어두고 모른 척 하지 않고 배워가겠습니다. 서면시장 투쟁의 그 현장에서 처음 느꼈던 제 심정과 어제 심정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자본이 주는 혜택만을 바라보며 당연시 여겼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내 삶과 투쟁 현장 속에서 의 그들이 다르지 않음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을 서울로 유학 보낸 엄마의 입장으로 돌아가 딸의 생활비 걱정에 고깃집 주방 알바를 하러 가야만 했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도 느끼지만 좀 더 나은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와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 준 우리 반빈곤 식구들 고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깊은 사유와 토론, 방향 정립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연진 드림

어제에 이어 오늘(3/6) 아침에도 온천천 산책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비가 내려서 땅도 촉촉히 젖어 있었고 공기도 꽤 상쾌했습니다. 아마도 산책의 정수는 '관찰'인 거 같습니다. 하천 주변에 새로 생긴 운동기구가 보이고, 어제와 똑같은 러너들을 인지하고, 임대로 나와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몇 개인지 헤아려도 봅니다. 수영장을 따라 날아들어왔는지 갈매기들도 보입니다. 데크 위예까지 올라와 펜스 위에서 턱 버티고 앉아 있는 새까만 새들은, 이름을 몰라 챗지피티에게 물어봤더니 가마우지라고 합니다. 아주 위협적으로 날카로운 부리를 딱딱 거리면서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제발 이 데크 위에서 꺼져줄래! 너희 종들은 이런 편리함을 누릴 자격이 없어. 차라리 우리가 똥이나 싸고 더럽혀줄게." 라고 말했다고 제가 통역한다면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산책에 대한 한가지 오해는 '여유' 입니다. 사실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것입니다. 매일 매일이 전투인 인간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워밍업시키는 시간이지요. 아침이든 오후든 밤이든 산책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산책시간을 상상해봅니다♡

지아

오!! 저는 나무나 새들의 이름이 많이 궁금한데 그런 것도 챗GPT에게 물어보면 되는군요와 신세계ㅋㅋㅋㅋ

센터

낸시쌤 글 맛깔나게 잘 쓰신당항 가마우지랑 대화도 하셨군요!
외국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란 직업이 있대요. 동물의 마음을 읽고 대화까지 가능하면 거의 초능력인데~그만큼 감성이 풍부하단 얘기겠송? 아침산책, 비록 장소는 달라도 같이 걷는 기분이라 좋네요!

세실

산책의 정수가 관찰이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진찍어서 네이버나 구글에 올려도 비스무리한거 찾아주긴 하더라구요. 저희 동네 온천천에는 왜가리가 자주 보이는데 아마 물고기가 많아서인가봐요.
제 산책은 하루 5천~만보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 의거합니다.
폰을 놓고 나가면, 나갈 이유가 상실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지요.

햇볕 한 줍

가마우지와의 대화가 무척이나 흥미롭네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역해주신 내용을 전 믿습니다. ^^

2gamdok

보들레르가 말한 '열정적 구경꾼' + 동물 도청꾼항

부산반빈곤센터 2026년 1월 ~ 2월 회계보고

			1월	2월	
수입	이월금	이월금	6,939,586	6,099,317	
	회비	현금	340,320	755,320	
		CMS	1,653,220	1,580,475	
	후원금	후원금	0	600,000	
	재정사업	재정사업	0	0	
	교육사업	교육사업	0	0	
	기타수입	공공요금정산	60,058	100,106	
		기타수입	0	0	
공모사업	공모사업	0	0		
수입합계			8,993,184	9,135,218	
지출	업무비	임대료	사무실임대료	300,000	300,000
		공공요금	공공요금	64,550	46,800
		비품비	비품비	2,500	198,900
		소모품비	소모품비	0	40,500
		교육비	활동가교육비	0	0
			활동비	1,900,000	1,900,000
			보험료	16,000	16,000
			상여금	0	0
	인건비	퇴직금적립	190,300	190,300	
		CMS사용료	CMS사용료	57,957	57,904
		소 계		2,531,307	2,750,404
		사업비	연대사업비	분담금등	40,000
	선전인쇄비		소식지등	93,360	0
	조직화사업비		조직화사업비	120,500	0
	회원사업비		회원사업비	0	540,110
	회의비		회의비	108,700	45,000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0	0
	재정사업비		달달한품앗이	0	0
	출장비		출장비	0	1,700
	은행수수료		은행수수료	0	0
예비비	예비비		0	0	
공모사업비	공모사업비		0	0	
소 계		362,560	616,810		
지출합계			2,893,867	3,367,214	
잔액			6,099,317	5,768,004	

부산반빈곤센터 활동일지

[1월]

- 6일 1차 총회준비위원회(19시, 달품)
- 9일 사회과학세미나 '노동자 평의회' 읽기 (19시, 달품)
- 10일 길위에 신년회(11시, 예술창고)
- 14일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집회 참석 (18:30, 서면시장)
- 15일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19시, 달품)
- 20일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결과공유회 (13시, 청년공간JU)
- 21일 서면시장번영회지회 집회 참석 (18:30, 서면시장)
- 23일 사회과학세미나 '노동자 평의회' 읽기 (19시, 달품)
- 26일 편집위원회 회의(19시, 시민운동지원센터)
- 27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8일 영화숙재생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 참석(14시, 부산지방법원 앞) 서면시장 문화제 참석(19시, 서면시장)
- 29일 2차 총회준비위원회(19시, 달품)

[2월]

- 3일 공영장례 연구팀 회의(15시, 영화숙협의회)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7일 윤웅태 동지 10주기 추모제(11시, 솔밭산) 윤웅태 동지 10주기 토론회(15시, 달품)
- 9일 3차 총회준비위원회(19시, 달품)
- 10일 KBS다큐인사이트 자문회의(13시, 달품)
- 12일 비빔밥데이 및 공영장례 조문단 후속모임 (12시, 달품) 이수기업 투쟁 500일 집회 (17시, 현대자동차 앞)
- 13일 제9회 장애인민 합동추모식(11시, 영락공원) 박일수 열사 22주기 추모제 참석 (17:30, 현대중공업 앞)
- 17일 합동차레(11시, 영화숙협의회)
- 24일 길위에 정기연습(19시, 달품)
- 25일 서면시장 문화제 참석(19시, 서면시장)
- 27일 2026정기총회(19시, 달품)

★ 고정필진 및 편집팀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적/비정기적 기고환영! 소식지 기획, 편집, 취재, 촬영 함께 하실 분!
환/영/합/니/다 문의 010-7156-2515(편집위원장)

★ 사회과학세미나 5월부터 신규 커리 시작! ★

사회과학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눈치만 보던 분들 있죠?
5월이 바로 합류하실 기회! 문의 010-3993-9545(교육위원장)

★ 길위에 멤버 상시 모집 ★

조건은 단 두가지! 1) 월 2회 연습 필참 (+ 공연 참석)
2) 노래를 배울 의사가 있는 분! 문의 010-5135-7957



사진: 정남준 님



부산반빈곤센터는 2010년 4월 1일 발족,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조적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반빈곤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및 교육 ▲ 불안정노동철폐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활동
 - ▲ 공영장례 등 민중복지 쟁취 운동 ▲ 인권현안 연대사업 ▲ 1017빈곤철폐의날 기획사업
 - ▲ 새로운 교육실천을 위한 세미나 ▲ 노래패 길위에 등 소모임을 합니다.
-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발행 : 부산반빈곤센터 | 편집위원장 : 김원석 | 편집위원 : 김민수, 전소현, 최고운
 부산 동구 초량로53 | cafe.daum.net/2010bac | bapc@daum.net | 051)645-0418



일정안내

사회과학세미나 - 노동자평의회 읽기

4월 10일(금) 4월 30일(목) 저녁 7시, 공간달풍

* 5월 1일이 노동절이라 하루 앞당겨서 합니다 :)

5월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이 시작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6 봄소풍 - 온천천 산책

3월 28일(토) 오전 11시, 수안초 정문

회원 가입

bit.ly/bapc2017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bapc0401
홈페이지 bapc.kr

후원 계좌

부산은행 101-2043-6389-04 (부산반빈곤센터)